

#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序

安東權氏는 千有餘禩의 歷史와 其麗不億의 宗族을 헤아리는 東方大姓이다. 그 가운데 우리 花川君派로서는 從來 大同 및 派譜 凡六本이 있었으니 成化譜를 비롯한 辛巳·甲寅·後甲寅은 大同譜이며 近世의 丙寅·庚子는 司諫公派譜로 編修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系譜는 遂庵文 純公에 이르러 大備하게 되었다고 본다.

지난 庚子에 宗老諸公이 譜를 葺은지 於焉 二十有餘의 歲月이 흘렀다. 다시 續修할 때가 된 것이다. 元來 世代가 멀어짐에 따라 子姓이 더욱 繁衍하게 되면 이를 同一譜에 收습하기란 어렵지라 派譜가 由生하게 마련이니 이는 어찌할 수 없는 勢이다. 이리하여 及其也 花川君派의 宗議로 不得已 花川君派譜를 編修하기에 이르렀다. 當初 花川君 上下累代의 墳墓가 옛 廣州 淸潭洞에 있었는데 지난 辛亥年間 서울市勢의 擴張으로 因해 그 七代孫 正獻公尚游의 墓山인 錦山杜谷으로 모두 遷奉하고 粵十年庚申에 그 新阡아래에 다시 齊宮을 세웠으며 이어 派譜를 葺기로 意見을 모았다. 이에 時宜에 맞도록 凡例를 定하고는 四年間 收單編輯한 나머지 드디어 그 上梓를 보게 된 것이다. 原則的으로 舊譜에 登載된 것은 다 그대로 따르되 補遺正訛에 힘썼으며, 오직 新單에 限하여 새 凡例에 依해 編纂하였다.

그윽히 생각하던대 한 氏族을 系譜化하게 된 것은 中國宋代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宗族마다 그 譜를 貴히 여기는바는 그 一族의 系統을 體系化해 놓은데도 있으려니와, 보다 重한 것은

어느 家門이고 그 先祖에는 平生 辛勤을 다하여 한 門戶를 세우고, 그 後人들에게 庇護의 蔭  
 德을 심어준 분이 있다. 그 後孫된 자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고, 또 스스로 그 德을 닦아 함  
 께 門戶를 지켜 나가도록 밝혀준 것이 族譜이기 때문이다. 멀리 우리 始祖太師公은 그 偉大  
 하신 德業이 靑史와 더불어悠久히 빛나려니와, 가깝게는 花川君襄平公이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 事蹟을 이 譜에 大略 간추려 실었다. 이를 살펴 보더라도 그러한 功烈과 令名을  
 남기신 裏面에는 辛勤히 닦으심은 陰德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살펴 보  
 자 以來五百年을 통하여 儒賢·名碩·忠烈과 그밖에 많은 文學之士가 輩出되었다. 우리는  
 이에서 또한 그 後昆이 先祖의 遺德을 어떻게 法받고 닦아왔기에 이와같이 連綿不絕할 수 있  
 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傳에 이르기를 「善을 쌓은 집에는 많은 慶事가 따른다」고  
 하였다. 나는 花川君께서 심으신 德과, 後孫이 繼承해온 자취에서 이는 善을 쌓은데 대한 天  
 의 報應과 아울러 忠孝를 바탕으로 한 우리 家法이 남은 當然한 結果라고 믿는다. 程子는 말  
 씌하기를 「사람마다 根本을 잃지 않게 하려면 모름지기 그 譜系를 밝혀 주어야 한다」 하였으며  
 또 蘇氏는 그 譜序에서 「無服親盡하여 情盡하게 되면 塗人과 같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  
 族譜를 이루워 놓았다」고 말하였다. 모두가 格言至論이다. 그런데 오늘날 실로 懼然하리만큼  
 孝悌의 道가 數絶되고 根本을 忘却하기에 이른 深刻한 이 現實에 즈음하여 이제 우리 譜 上下  
 二冊이 나오게 된 것은 실로 多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우리 譜를 살펴 보는 자 스스로 孝하고 悌하는 마음이 油然而生하리라 이 譜에 실

린 後孫의 數爻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미루어 올라가면 一人之身이며, 그 一人之身이 兄弟로 나뉘고 각기 子孫으로 내려왔은즉 다 그 同氣連枝가 아니던가. 우리 모두 孝悌하고 敦睦하여 다같이 先祖의 德을 본받고 諸賢의 法統을 이어 이 門戶를 守成해 나가는데 힘써 주기를 同宗 諸君子에게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譜를 이루기까지 始終盡力한 任員여러분의 勞 苦에 깊이 致謝하는 바이다.

舊譜序 西紀一九八四年甲子十月

花川君十七世嗣孫 熙宗謹序

成化譜序

辛巳譜序跋

甲寅譜跋

後甲寅譜序

丙寅譜序

庚子譜序

墓山圖

太師公

郎中公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序

# 舊譜序跋

## 成化譜序

(成宗七年西紀一四七六年)

權本新羅宗姓金氏也羅季有金公幸者守古昌郡時甄萱入新羅弑王辱妃高麗太祖赴救與萱相持幸謀於衆曰萱義不共戴天盍歸王公以雪痛憤遂迎降麗祖曰幸能炳機達權乃賜姓權授太師以郡爲食邑陞爲安東府幸生仁幸官至郎中仁幸生冊冊自求爲本邑吏權氏自冊爲吏以還中微不振者七世至守平復興子孫趾美逮文正始大顯隆守洪之後文坦亦復貴顯權氏遂分爲二大族今衣冠簪履布列朝著餘數千指皆二族支派也居正外祖陽村權文忠公近亦文正曾孫舅氏權文景公跽始修家譜小牒子吉昌權翼平公擘承先志廣採博訪大加增潤亦未就緒居正與尚州判官朴元昌大邱府使崔灝元又加搜問補其闕遺證其訛僞釐爲圖譜二卷其爲譜詳於文正文坦以下而略其上者錄其所可知而缺其所不可知將以傳信將來耳譜旣成倩慶尚監司尹公壕刊于安東府予惟古者有宗法序昭穆別支庶子孫雖百世可考自宗法廢而譜牒興凡爲譜必推本其所自出而詳錄其所由分明支派別親疎猶足以篤恩誼而正倫理者矣隋唐而上置圖譜局有郎吏以掌撰述婚姻選舉皆關譜牒今中朝上自公卿大夫下至孤門單族亦莫不有譜上自唐虞三代始封之祖而祖之雖高辛神農顓頊之遠皆一一接續而序次其譜系豈不以圖牒相傳得有所考歟吾東方自古無宗法又無譜牒雖巨家大族絕無家乘纔傳數世有不記高曾祖考名號者子孫浸以乖隔或不識總功之親視同路人何待服盡親盡而疎且遠哉如是而欲興孝悌成禮讓豈不難乎此吾文景翼平所以惓惓於著譜而居正之勉卒其

志者也權氏自太師始封今六百年子孫蕃衍詩書之澤悠久未艾蓋根深者末茂源遠者流長理之必然也嗚呼自古名宗華胄不爲不多當其珪組蟬聯門地煥赫孰非可慕而可尊者乎曾未數傳傾覆剝絕何哉由其先世封植未固而子孫遽以驕奢失之也權氏世以清白傳家忠孝爲心爲子孫者可不念祖宗積之之勤而思所以繼之之道乎記曰人道親親也親親故尊祖尊祖故敬宗敬宗故收族若能始於親親推及九族則所以厚本敦末者豈有窮哉詩曰無念爾祖聿修厥德吾更爲權氏子孫勗之

成化紀元之十二年蒼龍丙申正月 日

純誠明亮佐理功臣崇政大夫行議政府左叅贊兼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達城君 徐居正 剛中 叙

## 辛巳譜序

(肅宗二十七年 西紀一七〇一年)

世之百族皆有譜然譜有四難祖世遠而枝派繁則難詳一難也一士之耳目不能周乎遠近若無敏達之士惇此事者不能助發聰明旁搜而博證此二難也孽孫無近嫡或蒙殘系之正派而亂其嫡閑民規避役或窺功臣之絕緒而冒爲後不窮根不能明不明見不能正此三難也假今之擣掇無所遺序列悉應實或無能承其後者明而俄且紊此四難也夫單門族類寡則易譜也間亦難於窺領而或不克若其當况譜名宗大族而歷道所難若云四者特其大略耳纖微之間有不可勝理者可遍而目言之哉我權氏積德累善之世也自太師受姓以來幾千年子孫大益盛上而公卿大夫賢英才學之士文武有勲力之臣接聲烈於朝下而布衣諸生庶人吏胥賤隸盈於國中本一根而條循而葉計之則可千萬數欲摠同貴賤而譜次之雖察士不能若所出微源系無所考

而不可得以譜不論即夫洪枝巨派世之所訟見而慕望者及所自而嬗傳至夫見在人也明有符頗可著者而序錄之差若不難而猶患夫包羅或不能悉又患夫莫與爲因資又患夫託邪墜塚之者又多他妄繆相紛者故吾宗之譜視諸氏尤難我朝初文景公跽始爲家譜不及統輯一宗府院君擘嗣爲之亦不卒徐相國居正文景之甥也與判官朴元昌府使崔灝元踵成圖譜二卷梓行之議者猶恨其闕漏多板刻遇難散失不復傳後百數十年叅奉紀與叅奉行可及太師廟有司重常因舊譜增修既屬草而時無能力爲此者不時授梓卒伏不發後五十年叅判堦觀察嶺南選於宗而主修宗譜通收諸家譜草省外裔定著宗姓爲譜一卷刻之安東府而記載略證校疎所爲聽察而是正之者不能不令覽者生之言後幾五十年縣監泰時氏慨吾盛宗無全譜與府中宗人通共嶺中諸宗世系釐爲七卷蓋作始也已聞正郎胄氏旣修文忠公子孫錄因欲摠修宗譜乃將七卷譜遺諸家願合成譜後有年順興宗人胤錫閱譜久不就私備梓累百板走告胄氏胄氏謝病不能即取所爲譜并所集右尹諤持平恒叅判珪所修世譜歸之于泰時氏於是諸家譜畢集與幼學壇愷萬矩斗韓處經郡守聖矩縣監斗寅等專志力領理諸譜及所記聞於四方者叅瓦考對剏僞存真要使統緒明而曲故不得容外派曾孫而止作原譜十一卷別譜二卷凡十三卷雖不可曰大山之草可盡數上路之塵可盡滌合群賢之明智而蘇尋灑濯審而勤也設有遺莖餘埃當亦少矣夫譜非私所譜者一姓也爲世教也禮言尊祖敬宗收族之道已備此道也上能之則大本立於上下能之則人道竭於下以至百志成禮俗刑此上下交相冀者也是以后王聽治必先治親治親始於譜牒故昔唐太宗詔著天下世族志我世宗命撰東國姓氏錄領天下國家而欲善治者要賴此耳然士之志於譜學者寡間亦有之而或不能竟其意或不翕於來情非直爲之難蓋亦不值夫能於此而執終始者也乃今吾宗譜屢有得失而始茲完定差須泰時氏耳旣敬賀譜成已又以禮所謂者深有望於我諸宗

若今徃施續願貽夫後之宗儒刊役則壇有中主而工費用則前後觀察使前後府伯多所助籍訖刻云

崇禎丙子後六十六年辛巳夏四月 日 資憲大夫行龍驤衛副護軍 權 愈 謹序

辛巳譜跋 其一

權太師内外子孫之蕃衍其麗不億實吾東方之盛族也余於庚辰五月知安東府到官所翌日祇謁于大師廟凡爲地主者疇不仰止太師而余又忝居外裔之末崇奉之道安敢怠闕禮訖坐崇報堂敬檢太師遺蹟有若壇氏萬矩斗韓氏三人揖余而言曰權氏譜牒刊行於世者非一本而記載或踈年代浸久前縣監泰時甫裒集定著先成七卷與維中宗人私記之譜合爲十三卷分授同宗諸君子精加校讎仍付劄劄氏數月而工斷手使遐苗咸知得姓之所自來派流之所由分其用意完譜可謂勤且摯矣太學士愈公序語甚詳更不容贅他以余適守是府預聞是役諸君子必使余跋其後辭不得略叙始末如是云爾

辛巳日南至

通政大夫行府使 朴 紳 謹跋

辛巳譜跋 其二

宗人故縣監泰時氏與宗人壇證萬矩斗韓郡守聖矩縣監斗寅粹舊所傳成化年間徐四佳所修權氏譜及萬歷間叅奉權公紀所編十六卷傍取近來權政丞尚夏權叅判珪權持平恆權僉正胄所撰譜牒而先祖炭翁先生所修者亦與焉所聚凡七家又廣加搜訪所聞益廣則叅瓦考證積六七年成元譜十一卷別譜二卷則其用意至勤且苦矣同吾姓者遍一國遐陬窮鄉伏而不顯未必盡無所漏盡無所舛而稍見知於世者蓋少漏且舛

矣四方同宗聞其事而喜嘉多有出錢助其入梓雖異姓外派苟有按是道守是府及守傍郡者無不相助用錕數百千開板於安東府治始祖太師廟印傳四方亦有年所則八九百年間世系族序開卷燦然使千枝萬派知其初之爲一人而久同路人欣戚不相關者苟入吾譜皆可稽其世次而計其遠近親愛之心未必不由是而油然而爲國家風化之助豈特吾一姓之喜而已夫何宗人中一二人以其先傍註之不備及佗道人見漏者妄意竄刻改易字次則篇帙錯亂承接莫辨舉全譜爲無用之書使諸宗老十年勤苦千年始一有之譜暫行而旋廢此其所可忍爲者哉泰時氏慨然疚心與自初同事人斗韓處經及郡守之子輒更議從舊欲使之刊正以行而未及就緒大耋已嗟斗韓處經及輒諸宗人克成前約鳩若干財改刻三四十板以從舊本則自此可以印行如前矣夫人子之將使人知其親者欲恃此區區數行之傍註其爲計已未矣而因此亂其譜使不得傳布則又豈非不思之甚乎繼自今或有如前之做錯者則非但爲吾宗之罪人以私亂公亦當有有司之法諸宗人以余適知是府使記其改刻顛末亦有小助而仍爲之跋俾後人知所戒毋或亂吾譜也

己亥 月 日

後孫 府使 以鎮 謹跋

### 甲寅譜跋

(英祖十年甲寅 西紀一七三四年)

我權得姓以後柯葉分布殆滿一國爲東邦蟬聯大族而所謂譜古則無之國初以下二百年間只有四佳成化譜上下卷刊行其後龍巒公乙巳譜十六卷草定而未刊甲午譜雖刊而單本草草所放失甚多其餘若公山譜盤松譜鑄洞譜又皆私藏草本而已全譜修刊之不易有如此者迺於肅廟丙子嶺中諸宗老懼其散落而無統緒悉取古今諸家本加彙葉焉合成一本摠十三卷越六年辛巳始入梓于本府吾家譜乃得完且成而印布未



廣旋值辛丑大火板皆爲燼噫乎何其不倖也甲辰秋宗人等慨然發議重刊前寢郎厚氏聞而樂成之遂發告中外更聚各派譜單叅考辛巳本辨別疑亂出草稿十三帙已酉夏委送于本所就加讎校凡三易稿定爲原譜十四卷別譜三卷顧其編帙浩穰工費許多故嶺之諸宗爲收合錢財又得湖嶺伯所助百餘金合而子母之獲其贏六年而後始役首尾五朔乃克斷手其艱甚矣茲故略記前後繼述之勤以備門中掌故且以示譜事之難如是云

甲寅六月 日

二十六代孫 德秀 謹跋

## 後甲寅譜序

(正祖十八年甲寅 西紀一七九四年)

系譜之傳厥惟難矣自曾子固之淹博已不能無失而有氏族之辨而况偏方謏陋之見哉惟我安東之權自太師公以下碩輔名卿世奕代振如漢之金張晉之王謝不待徵之家譜而於金華之記可按而知也然吾家之重氏族舊矣譜牒之修亦屢矣不以赫赫然照人爲自夸而以古人系譜之難爲可戒其旨遠矣雖然舊譜之成今已六十餘年矣裕之孫曾行亦多有承冠且抱子者矣而裕之名不得入焉則計我諸宗之散在四方者又凡幾人矣派別甚繁多裒輯劇龐蹟除非數十人之力數十年之功有未易了當者則吾家之譜其將廢矣余蓋隱之於心而竊憂之歲辛亥春金太師之後在安東者爭太師廟尊獻事妄肆誣詆安東諸宗氏函來教告余余與露章陳辨遂蒙上特加昭釋已仍以前所隱憂於心者諭諸宗氏曰失今不爲恐此事便已諸宗氏盍相與勉旃咸曰諾於是廣搜博訪勤鳩嚴董閱四年工告訖凡三十四卷雖其規模例凡遵承乎成法而編帙之大工役之鉅實倍徙于前乃諸宗氏殫竭心力用能績成使我三數世厥典至是完焉其志誠且勤矣而不替吾家重氏族之

前矩矣諸宗氏以裕預知茲役合有一言裕辭不獲余惟是譜也詳內而略外重始而謹終於其枝派之蕃衍也有以知積德之深厚於其簪組之輝赫也有以驗流慶之弘長凡我諸宗孫子無徒以是譜之成爲喜各自磨濯淬礪以敦孝悌廣睦姻毋或忝爲太師公雲仍也則是譜也未必非他日昌大門戶之一權輿也非特重氏族之意而已也

上之十八年甲寅六月 日

二十八代孫 前大司諫 裕 謹識

### 丙寅譜序 (西紀一九二六年)

昔在隆古世紀醇醲民生稍繁聖人出震嚮明以治親九族而章百姓則尚矣難及暨乎三代文獻草創至周大備文乎郁郁禮又彬彬詩云繩其祖武本支百世又曰以燕翼子貽厥孫謀下至唐宋以來各立門戶設譜系而重氏族焉李陸之系蘇史之譜班可見歷歷可考者也我權以左海巨族世祉煥赫圭組蟬聯勳臣代出儒賢踵繼文章經術抑其一事也其麗不萬分爲幾派者成化丙辛諸譜合以刊印爲三十餘卷卷帙煩瑣浩複難考故欲自 司諫公以後合爲派譜而爲其苗裔者散在畿湖二南江原諸處嫂問頗艱收單遷就經營有年今始訖工卷帙簡便來歷昭詳此非所謂事簡而意悉者乎凡我同派諸族世襲忠孝庭訓詩禮上以念先祖積累之基下以成后孫繼述之訓則親族章姓繩武貽謀之規模反不讓於唐周之美而風化與有光於宋明之美矣其於尊祖敬族之意席蔭裕崑之計顧不重歟亦不美哉然則凡爲我族者盍各焉勉乎哉曷敢不敬之歟

丙寅十二月 日

后孫 渠 謹序

庚子譜序

(西紀一九六〇年)

國有史族有譜其揆一也我權之貫於安東自 太師公始而歷千有餘年子孫繁衍官冕相承遍居八域者其麗不億大同而合之非聰明通達有幹局者不能故至十世分爲十四派中惟我 侍中公之後裔散居畿甸嶺湖者指不勝僂非輪蹄所盡及然修譜已久不可及焉而戊戌仲冬會尊於清潭先齋論議峻發詢謀僉同遂定規約通告于諸宗所在響應至今告工是僉君子敏於事而精於系如此儘收宗族厚風俗明譜系之也豈不韙哉嗚呼是役也於 太師公廟宇重建之後豈無重本達支之感哉自一人之身分而爲千萬人之身雖有親疎遠近之分開卷瞭然千里而咫尺如百世而如堂廡爵諡年忌墓所昭穆之序歷歷如在裕席之上敦睦之風孝悌之心油然而生詩曰明發不寐以思二人又曰無忝爾所生以此誦之以獻於任員僉君子又深有望於方來云爾

庚子殷春驚蟄日

後孫 容仁 謹序

安東權氏花川君派世譜上卷

始祖

權幸

諱幸麗史或作行本

金氏新羅宗姓也

敬順王三年己丑

十月甄萱圍古昌

公與金公宣平張

公貞弼倡義佐麗

祖庚寅正月助戰

破萱于瓶山麗祖

喜曰金幸能炳幾

達權賜姓權封功

授爵拜大相尋陞

三韓壁上三重天

匡亞父功臣太師

陞郡為安東府為

食邑遺民思公德

立廟府司並祠金

長二公事載退溪

李滉記文我正宗

丙午又建追遠祠

于慶州雲谷碣文

西厓柳成龍撰神

道碑銘後孫炭翁

認撰外裔孫叅議

李慶徽書眉叟許

穆篆碑陰記外裔

二世

子仁幸

郎中○益齋李齊

賢云羅人有祖子

孫同名者蓋時俗

然也

配陽川許氏父大匡

孔農村主宣文○

墓壇清道郡雲門

面亭上里子坐

清道孔巖村北亭

子洞或云吾里洞

現亭上里有大塚

俗傳權陵英宗丙

寅二十八世孫燾

按本道時尋驗未

得○禮紀四二六

七年甲戌設壇建

齋碑文三十五世

孫觀察使益相撰

三十五世孫琦煥

書大字三十世孫

丙燮書享祠每年

九月下丁

○此下十餘代墓

所及夫人姓氏皆

失傳也

三世

子冊

戶長正朝高麗成

宗二年初置十二

牧鄉吏職號以堂

大等為戶長以大

等為副戶長以郎

中為戶長同正員

外郎為副正公自

求為戶長糾正風

俗仍以世仕

四世

子均漢

右一品別將

五世

子子彭

戶長正朝

六世

子先蓋

戶長同正行翼牙

校尉

七世

子廉

戶長同正行部我

校尉